

## 8 인터뷰-(전)교정보본부장 김학성 동문(법학 85)



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'원칙'이었습니다.

(사진=정성희 기자)

## “원칙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”

정성희 기자 keykeys923@khu.ac.kr  
박희원 기자 rxxtxfjxy@khu.ac.kr

# 대화는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이해하는 좋은 방식임과 동시에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우리신문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던 나 자신과 마주 보려고 합니다. 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김학성 동문(법학 85)을 만나 그가 지켜온 삶의 태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.

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보이던 로펌의 한 회의실에서 김학성 동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김 동문은 26살 때 5급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1급 관리관인 교정보본부장까지 오르기까지 원칙을 중요시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. 교정보본부장 재직 시절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. 이때 김 동문은 대립

하는 의견 속에 중립을 지키며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교정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는 2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교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

### 인생은 때와 운명을 따라

김 동문에게 공직 생활은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. 법학과의 대부분 학생이 그러하듯이 김 동문 또한 사법고시 합격을 꿈꿨습니다. 하지만 3년간의 도전에도 합격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당시 행정고시 1차 합격이 군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 행정고시에 지원했습니다. 그는 “그런 이유로 보게 된 행정고시에 1차 합격을 하게 되고, 그해에 2차도 합격해 계획에 없었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됐다”며 뜻하지 않았던 기회가 운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. 이러한 운명적인 공직 생활의 바탕에는 우리학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.

김 동문은 대학 시절 자기 모습을 “때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사람”으로 묘사했습니다. 김 동문은 당시 법학과가 본관에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동기들과 본관 계단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던 추억을 회상합니다. 그는 “저학년 때는 학생 운동에 참여하거나 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등 학교생활을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데 집중했다”며 “하지만 취업과 진로의 확신이 필요한 고학년부터는 학업에 충실하게 임하여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”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. 덧붙여 “대학이라는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미래의 큰 자산이 된다”고 전했습니다.

### 공직생활의 키워드는 ‘원칙’

26년간의 공직 생활에서 김 동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원칙이었습니다.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던 그는 “그때마다 쉽지 않았지만,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”

고 운을 뗐습니다. 전 대통령들이 구금돼 있던 교정보본부장 시절 그는 “큰 주목을 받는 이슈에 ‘원칙과 규정’을 지키며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큰 사고 없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”고 조심스럽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. “여러 의견이 난무했던 당시에 원칙대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”이라며 “자신의 욕심을 채워 주목받으려 하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”고 그는 말했습니다.

교정 본부장으로서 임기를 다 마친 김 동문은 현재 법인에서 교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김 동문은 “범죄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켜 재범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”며 “그들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교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말했습니다. 이어 10년 뒤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“공직에 대한 욕구가

여전히 남아있기는 하나 새로운 도전이 망설여지기는 한다”며 “군대를 한 번 경험해보고 다시 가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과 천차만별이지 않냐”고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.

###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라

행정고시의 난이도라는 장벽 때문에 도전조차 하기 꺼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. 김 동문은 이러한 후배들을 위한 말을 남겼습니다. 그는 “충분한 능력이 되는 데도 지원조차 안 한다는 소식에 많이 안타까웠다”며 “안될 것 같다며 포기하는 것보다 꿈과 이상을 크게 가지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”고 말합니다.

‘운명’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기회의 순간을 기대하며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. 김 동문은 “실패나 좌절의 순간에도 이에 굴복하지 않고 이 또한 운명임을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”며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좌절하지 않고 바뀌어버린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서 살아갈 것을 전했습니다.